

유아교육 · 보육기관 평가인정제 개발 연구*

Accreditation Standards and Procedures for Institution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양 옥 승**
Yang, Ok Seung

ABSTRACT

A large sample (1090) of randomly selected early childhood education professionals and government officials rated each of the 133 standards of "A Model for Institutional Accredit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Yang, 1999) on a scale of 1 (least important) to 5 (most important). Findings were that all kindergartens and child care centers should be evaluated for accreditation every 3 years with 3-6 months for self-study and on-site validation visits by representatives of the appropriate agencies for 1-2 days. Evaluation results are should be used by institution personnel as a guide to self-supervision, by government officials as a funding standard and by parents as criteria of program quality. Essential accreditation standards included: facilities and equipment; curriculum; nutrition, health and safety;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and support systems. Safety and teacher-child interactions were most highly rated while parent involvement was not highly rated.

• 유아교육(early childhood education), 보육(child care), 평가인정제(accreditation)

*이 논문은 1999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덕성여자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I. 서론

경제발전과 더불어 나타난 한국 사회의 문화적인 제반 여건의 성숙은 유아교육에 대한 기회 확대는 물론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새로운 기틀을 형성하였다. 지난 5년간 3-5세 유아의 유치원과 보육시설 취원율은 1995년 42.3%, 1996년 47.9%, 1997년 52.5%, 1998년 51.2%, 1999년 56.1%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교육부, 2000; 보건복지부, 2000). 2000년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1995년 72만 명에서 1999년 61만 명(가임 여성 1인당 출생아 수 1.42명¹⁾)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어서 유아기 인적 자원 개발의 중장기 정책과 연계한 종합적인 유아교육·복지 제도 도입과 정책 추진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국가는 시설확충에 치중한 나머지 유아의 발달적 요구나 가족과 사회의 요구에 부합되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한 채 최소의 설립인가 기준만을 충족하거나 상업성에 치중하여 경쟁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도록 방치해왔다. 따라서 유아교육·보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사회적 책무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국에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하 '유아교육·보육기관'이라 칭함)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인정제가 필요하다. 평가인정제는 통일 후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질적 관리가 없는 상태에서 구 동독이 구 서독의 교

육·보육 시스템을 전면 수용함으로써 유아교육의 발전을 지체시키고 있는 독일의 경험 사례에 비추어서도 절실하다(Krappmann, 2000).

유아교육·보육기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면 그 형태는 교육·복지형이 되어야 할 것이다(양옥승, 1999; Yang, 2000). 이러한 유형의 평가체계는 유아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위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한 서비스 뿐 아니라 가족지원과 교원 복지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양옥승, 1991; 이은화, 양옥승, 1988)는 기본 가정이 깔려있다²⁾. 그리하여 평가과정에 학부모와 교사가 직접 참여케 하고 평가기준에 시설·설비, 교육과정, 영양·건강·안전관리, 운영관리체계 이외에 가족 서비스나 사회적 자원과 관련된 지원체제를 하나의 영역으로 포함하는 특징이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복지형 종합평가제는 그 국가가 가진 복지국가에 대한 정치, 경제적 이념이나 사회 문화적 특성에 따라 다양화되고 있다. 이를테면, 국가가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보수적 조합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개발된 전국 규모의 평가인정제가 사회적 책무성 차원에서 개발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자유주의 이념을 지닌 미국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제고에 주목하여 평가인정제를 개발한다(이인효 외, 1998; 임연기, 신상명, 1998; 장명립, 1999; Bryce,

1) 이 수치는 미국, 프랑스, 캐나다와 같은 복지 국가의 평균치인 1.7명보다도 낮은 것이다.

2) 이밖에 이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평가인정제'라는 용어는 '종합평가제'를 뜻하는 것으로, 지역(지방 정부나 민간단체)이나 국가(중앙정부)의 어느 수준에서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전국 규모로 개발되어야 하며, 평가기준은 재정기준과 인정기준을 통합하며, 그리고 적용 범위는 공사립을 망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1995; Cochrane, 2000; ERO, 2000; Harper, 1995; Jackson, 1996; Murray, 1996; Page-Jones, 2000). 그러므로 미국의 경우 Head Start와 같이 중앙정부의 재원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프로그램의 질 제고와 사회적 책무성의 양 측면을 강조하여 행, 재정적인 지원 기준으로서 종합평가 인정제를 제도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방정부, 즉 주정부나 지역 단위로도 프로그램의 질 제고 뿐 아니라 사회적 책무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평가인정제를 개발, 정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New York Times, 2000년 11월 2일).

이 연구의 목적은 본 연구자가 1997년부터 지난 3년간 제1차³⁾와 제2차⁴⁾에 걸쳐 수행했던 선행 연구에서 제안한 「유아교육·보육기관 평가인정제 모형(안)」의 한국 유아교육·보육 현장에의 현장적용 가능성에 대한 유아교육·보육 전문가들의 요구를 분석하여 전국 규모로 시행 가능한 종합평가 인정제를 개발하는 근거를 마

련하는데 있다. 그리하여 제3차 연구에 해당하는 본 연구에서는 평가인정제의 기본 방향과 절차, 평가 인정기준에 대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 유치원 및 어린이집 행정담당자, 유아교육 및 보육 관련 대학교수 등 세 집단의 유아교육·보육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사, 분석하였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유치원 및 어린이집 행정담당자, 유아교육 및 보육 관련 대학교수 등의 세 집단에 속한 총 1,090명의 유아교육·보육 전문가들이 표집되었다. 구체적으로 원장·교사 집단은 모집단의 최소 1% 범위에서 지역별, 설립별 유형에 따라 유층표집 방법에 의해 무선적으로

3) 제1차 연구(양옥승, 1998)에서는 '종합평가제'로서의 전국 규모의 교육·복지형 평가인정제의 필요성을 밝히고 미국과 한국을 자유주의 국가로 간주한 Esping-Andersen(1990)의 분류를 적용하여 미국의 사례를 현지에서 조사, 분석하였다. 나아가서 중앙정부가 재정지원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Head Start 프로그램 수행기준」(Head Start Program Performance Standards)과 민간 유아교육단체인 NAEYC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평가인정준거」(Accreditation Criteria)의 적용실태를 분석하고, 그에 따라 한국이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와 사회적 책무성 양 측면에서 평가인정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Head Start의 재정기준과 NAEYC의 인정기준이라는 두 가지 평가체계를 통합한 '종합평가'기준(funding/accreditation standards)을 고안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4) 제1차 연구의 후속연구로 수행했던 제2차 연구(양옥승, 1999; Yang, 2000)에서는 교육·복지형 종합평가 체제로서 「Head Start 프로그램 수행기준」과 「NAEYC 평가인정준거」의 절차, 기준, 지표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따라 「유아교육·보육기관 평가인정제 모형(안)」을 설정하였다. 이 연구 과정에서는 첫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장애아를 포함한 특수한 요구를 가진 3-5세 유아가 어떤 기관이든 선택하여 다닐 수 있도록 그 조건을 조성하고 있는지, 둘째, 종합적 서비스 차원에서 유아의 발달뿐만 아니라 한국의 가족 구조나 교원의 근무조건과 실태 등의 요소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어느 정도 이해, 반영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을 평가기준에 덧붙여야 한다는 입장이 견지되었다.

390명이 선정되었고, 행정가와 교수 집단을 위해서는 360명과 340명이 단순 무선표집 방법에 의해 각각 선정되었다.

선정된 표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나 실제 분석 대상이 된 자료는 전체 표본의 65.1%에 해당하는 710부(원장·교사 집단 275부, 행정가 집단 241부, 교수 집단 194부)였다. 원장·교사 집단에서는 390부중에서 284부가 회수되었으나(회수율 72.8%), 자료분석을 위해서는 설문 응답이 누락된 9부를 제외한 총 275부(원장·교사 표본의 70.5%: 원장 112부, 교사 163부)가 그 분석 대상이 되었다. 행정가 집단은 총 360부 중 248부가 회수되었으나(회수율 68.9%), 설문 응답이 누락된 7부를 제외한 241부(행정가 표본의 66.9%)만이 분석 대상으로 처리되었다. 그리고 교수 집단의 경우에는 총 340부 중 201부만이 회수되었으며(회수율 59.1%), 일부 응답이 누락된 7부를 제외한 194부(교수 표본의 57.1%)가 분석 대상에 포함되었다.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유치원과 어린이집 평가인정제 모형 개발에 관한 설문지」는 본 연구자가 교육·복지형 종합평가체계로서 「Head Start 프로그램 수행기준」과 「NAEYC 평가인정준거」의 통합과 적용 가능성을 미국 현지에서 분석, 평가했던 일련의 선행연구(양옥승, 1998, 1999; Yang, 2000)에서 제안한 「유아 교육·보육기관 평가인정제 모형(안)」에 기초하여 제작한 것이다. 설문지는 평가인정제의 기본방향과 절차에 관한 질문 14개, 평가인정 기준의 중요도에 관한 질문 133개 등 총 14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인정 기준의 중요도에 관한 질문은 Likert형의 5단계(5점: 매우 중요하다, 4점: 중요하다, 3점: 보통이다, 2점: 중요하지 않다, 1점: 전혀 중요하지 않다)로 5개 평가 영역, 16개 평가 하위 영역, 45개 평가 항목으로 분류, 제시되어 있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PC+를 사용하여 통계적으로 분석되었다. 평가인정제 도입에 대한 반응은 평가인정제의 기본방향과 평가인정의 절차로 구분하여 변인별로 집단별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고, 집단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χ^2 검증을 하였다. 그리고 평가인정 기준의 중요도에 대한 반응은 평가 영역별, 평가 하위영역별, 평가 항목별, 평가인정 기준별로 집단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집단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F검증과 Scheffé검증을 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평가인정제의 기본방향

1) 평가인정 대상기관

평가인정 대상기관에 대한 반응을 보면(<표 1> 참조), 전체 응답자의 63.7%가 공립, 사립(민간)의 설립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유아교육·보육기관을 그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집단별 비율을 살펴보면, 원장·교사의 63.3%, 행정가의 58.9%, 교수의 70.1%가 이러한 반응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전체적인 반응 빈도를 집단별로 비교했을 때에는 집단간에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평가인정 주관기관

<표1>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39.9%가 중앙 행정부서, 33.1%가 지방 행정부서, 그리고 19.0%가 유아교육·보육관련 단체 순으로 평가인정 주관기관이 될 수 있다는 반응을 함으로써 평가인정 주관기관으로 연합회보다는 행정 부서가, 그리고 행정부서 중에서도 교육부나 보건복지부와 같은 중앙부처가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반응 빈도는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원장·교사(45.5%)와 교수(39.7%)는 중앙부처에, 그러가 하면 행정가(39.4%)는 지방 행정 부서에 보다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행정가 집단이 다른 두 집단과 다른 반응을 보인 것은 그들이 지방 부서에 소속되어 있다는 직업 특성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3) 평가 유형

기관을 평가할 때 자체평가만 할 것인지, 외부평가(실사)만 할 것인지, 아니면 자체평가와 외부평가를 병행할 것인지를 질문했을 때, 원장·교사의 90.2%, 행정가의 82.6%, 교수의 89.7% 등 전체 응답자의 87.5%가 자체평가와 외부평가를 모두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표1> 참조). 그러나 반응 빈도에 있어서는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가지 특이한 사실은 행정가 집단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외부평가만 실시하는 것(15.8%)에 상대적으로 많은 반응을 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해석은 평가인정 주관기관에 대한 반응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지방 행정부서의 선호도가 높았다는 것에 비추어 볼 때, 행정가는 행정기관의 이해 당사자로서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4) 평가결과의 공개방법

<표1>에 의하면, 유아교육·보육 전문가들은 평가인정 공개방법에 대해 일정 수준에 도달한 기관만 공개할 것을 원칙으로 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원장·교사의 43.6%, 행정가의 46.5%, 교수의 57.2% 등 전체 응답자의 48.3%가 이러한 입장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반응 빈도에 있어서는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테면, '일정수준에 도달한 기관만 공개한다'는 반응이 외의 경우, 행정가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모두 공개한다'에 찬성하는 비율이 39.4%로 집중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5) 평가결과의 활용방법

<표1>에서 보듯이 평가인정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지에 대한 응답은 다양하다. 전체 응답자의 33.1%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자율적인 질 관리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에, 30.8%는 '행정기관에서 재정지원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에, 그리고 30.3%는 '수요자를 위한 유아교육·보육기관 정보자료로 활용'에 찬성하였다. 집단별 반응 빈도 또한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테면, 원장·교사(49.8%)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자율적인 질 관리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고, 행정가(38.6%)와 교수(35.6%)는 '수요자를 위한 유아교육·보육기관 정보자료로 활용'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다.

6) 평가 주기

전체 응답자의 43.0%가 3년, 30.7%가 2년, 12.7%가 1년, 10%가 5년마다 평가인정제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표 1〉 평가인정제의 기본방향에 대한 반응 빈도 및 집단간 차이 비교

단위: 빈도(%)

내용	구 분	원장·교사	행정가	교수	계	χ^2
대상기관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36(13.1)	50(20.7)	14(7.2)	100(14.1)	34.05*** (df=8)
	민간 유치원과 어린이집	32(11.6)	18(7.5)	6(3.1)	56(7.9)	
	국·공립과 민간(사립)기관 모두	174(63.3)	142(58.9)	136(70.1)	452(63.7)	
	희망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31(11.3)	26(10.8)	35(18.0)	92(13.0)	
	기 타	2(0.7)	5(2.1)	3(1.5)	10(1.4)	
	계	275(100.0)	241(100.0)	194(99.9)	710(100.1)	
주관기관	전국 규모의 유치원 연합회 또는 보육시설 연합회	40(14.5)	57(23.7)	38(19.6)	135(19.0)	30.66*** (df=6)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련 중앙 행정부서	125(45.5)	81(33.6)	77(39.7)	283(39.9)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련 지방 행정부서	87(31.6)	95(39.4)	53(27.3)	235(33.1)	
	기 타	23(8.4)	8(3.3)	26(13.4)	57(8.0)	
	계	275(100.0)	241(100.0)	194(100.0)	710(100.0)	
평가유형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자체평가만 실시	14(5.1)	3(1.2)	3(1.5)	20(2.8)	30.08*** (df=6)
	외부평가단에 의한 외부평가만 실시	11(4.0)	38(15.8)	15(7.7)	64(9.0)	
	자체평가와 외부평가(실사)를 병행	248(90.2)	199(82.6)	174(89.7)	621(87.5)	
	기 타	2(.7)	1(.4)	2(1.0)	5(.7)	
	계	275(100.0)	241(100.0)	194(99.9)	710(100.0)	
공개방법	모두 공개한다	71(25.8)	95(39.4)	44(22.7)	210(29.6)	35.59*** (df=8)
	일정수준에 도달한 기관만 공개한다	120(43.6)	112(46.5)	111(57.2)	343(48.3)	
	희망하는 기관만 공개한다	63(22.9)	24(10.0)	33(17.0)	120(16.9)	
	모두 공개하지 않는다	17(6.2)	8(3.3)	4(2.1)	29(4.1)	
	기 타	4(1.5)	2(.8)	2(1.0)	8(1.1)	
	계	275(100.0)	241(100.0)	194(100.0)	710(100.0)	
결과활용방법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자율적인 질 관리를 위한 참고자료로만 활용	137(49.8)	48(19.9)	50(25.8)	235(33.1)	64.31*** (df=6)
	행정기관에서 재정지원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	75(27.3)	85(35.3)	59(30.4)	219(30.8)	
	수요자를 위한 유아교육·보육기관 정보자료로 활용	53(19.3)	93(38.6)	69(35.6)	215(30.3)	
	기 타	10(3.6)	15(6.2)	16(8.2)	41(5.8)	
	계	275(100.0)	241(100.0)	194(100.0)	710(100.0)	
평가주기	1년	60(21.8)	17(7.1)	13(6.7)	90(12.7)	66.12*** (df=10)
	2년	77(28.0)	89(36.9)	52(26.8)	218(30.7)	
	3년	106(38.5)	114(47.3)	85(43.8)	305(43.0)	
	4년	8(2.9)	8(3.3)	4(2.8)	20(2.8)	
	5년	21(7.6)	11(4.6)	39(20.1)	71(10.0)	
	기 타	3(1.1)	2(.8)	1(.5)	6(.8)	
	계	275(99.9)	241(100.0)	194(100.0)	710(100.0)	
평가인정형태	인정, 불인정으로만 구분한다.	21(7.6)	15(6.2)	13(6.7)	49(6.9)	22.44** (df=6)
	3등급(인정, 조건부인정, 불인정) 으로 구분한다.	61(22.2)	70(29.0)	79(40.7)	210(29.6)	
	5등급(최우수, 우수, 인정, 조건부 인정, 불인정)으로 구분한다.	187(68.0)	151(62.7)	97(50.0)	435(61.3)	
	기타	6(2.2)	5(2.1)	5(2.7)	16(2.2)	
	계	275(100.0)	241(100.1)	194(100.0)	710(100.0)	

P<.01, *P<.001

표1> 참조). 3년을 주기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빈도가 높지만, 모든 반응들을 집단별로 비교했을 때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원장·교사는 1년을 주기로 하자는 반응을 21.8%나 보여 행정가(7.1%)나 교수(6.7%)와 달리 자주 시행하는 것을 선호하는 데 반해, 교수 집단은 다른 집단과 달리 5년을 평가주기로 하는데 찬성하는 비율(20.1%)도 적지 않다. <표 1>을 보면, 원장·교사가 가장 짧은 1-3년 주기로, 행정가는 2-3년 주기로, 교수는 2-5년 주기로 평가인정제를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7) 평가인정의 형태

<표 1>을 보면 유아교육·보육 전문가들은 평가인정 형태를 5등급(최우수, 우수, 인정, 조건부 인정, 불인정)으로 나누는데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등급으로의 구분은 원장·교사 집단의 68.0%, 행정가의 62.7%, 교수의 50%가 선호하였다. 평가인정 형태에 대한 집단별 반응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게 차이를 보였다. 교수 집단은 다른 두 집단과는 달리 3등급(인정, 조건부 인정, 불인정)으로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지 않는 반응(40.7%)을 나타냈다.

2. 평가인정의 절차

1) 자체평가

(1) 평가기간: <표 2>를 살펴보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자체평가의 기간으로 유아교육·보육 전문가들(원장·교사의 46.9%, 행정가의 36.9%, 교수의 44.8% 등 총 응답자의 43.0%)은 3-6개월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반응 빈도에 있어서도 세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원장·교사(27.3%)와 행정가(29.9%) 집단은 '1개월'간의 자체평가 기간을 두는 것에 대한 지지가 많은데 비해 교수 집단(27.8%)은 '2개월'에 대한 지지가 상대적으로 많다. 그러나 3-6개월에 대한 원장·교사의 응답이 적지 않은 점

<표 2> 자체평가에 대한 반응 빈도 및 집단간 차이 비교

						단위: 빈도(%)
	구분	원장·교사	행정가	교수	계	χ^2
자체 평가 기간	1개월	75(27.3)	72(29.9)	42(21.6)	189(26.6)	20.34*
	2개월	41(14.9)	61(25.3)	54(27.8)	156(22.0)	
	3-6개월	129(46.9)	89(36.9)	87(44.8)	305(43.0)	
	기타	30(10.9)	19(7.9)	11(5.7)	60(8.5)	
	계	275(100.0)	241(100.0)	194(99.9)	710(100.1)	
자체 평가단*	해당기관 교사	208(35.8)	147(31.2)	168(36.3)	523(34.5)	
	해당기관 원장	188(32.4)	118(25.1)	133(28.7)	439(30.0)	
	해당기관 학부모	160(27.5)	171(36.3)	154(33.3)	485(32.0)	
	기타	25(4.3)	35(7.4)	8(1.7)	68(3.5)	
	계	581(100.0)	471(100.0)	463(100.0)	1,515(100.0)	

*P<.01

* 중복응답

을 감안한다면, 행정가 집단이 비교적 자체평가 기간을 짧게 두기를 바라는 것이 된다.

(2) 평가단 구성. 개별 응답자에게 자체 평가단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람 모두를 체크하도록 했을 때, 전체 평균이 2.1명이었다. 유아교육·보육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해당기관 교사(34.5%)와 학부모(32.0%)가 참여할 수 있다는 반응을 하였다(<표 2> 참조). 그러나 자체평가단 구성에 대한 반응 빈도는 집단별로 차이가 있다. 이를테면, 원장·교사 집단은 교사와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다고 반응한 행정가(교사: 31.2%; 학부모: 36.3%)와 교수(교사: 36.3%; 학부모: 33.3%) 집단과는 달리 해당기관 교사(35.8%)와 원장(32.4%)이 참여해야 한다는 다른 반응을 하였다.

2) 외부평가

(1) 평가기간. 외부평가(실사)를 실시할 경우, 그 기간을 며칠로 할 것인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32.7%는 2일에, 32.3%는 1일에 가장 많은 반응을 보였다(<표 3> 참조). 자체평가 기간에서와 마찬가지로 외부평가 기간에 대해서도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원장·교사(34.9%)는 1일을 선호하는 반면, 행정가(37.3%)와 교수(36.6%) 집단은 2일을 선호한다. 원장·교사는 자체평가는 길지라도(<표 2> 참조) 외부평가는 보다 짧아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2) 평가단 구성. 개별 응답자에게 외부 평가단(실사단)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람 모두를 체크하도록 했을 때(<표 3> 참조), 전체 평균이 2.7명이었다. 유아교육·보육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관련분야 전문가’(27.7%), ‘행정담당

자’(20.4%), ‘지역교사 대표’(17.8%)가 참여할 수 있다는 반응을 하였다(<표 3> 참조). 외부평가단 구성에 대한 반응 빈도 또한 집단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평가기간의 결정기준. <표 3>에 따르면, 외부평가 기간을 결정할 때에는 전체 응답자의 34.1%(원장·교사 28.4%, 행정가 37.8%, 교수 37.6%)가 ‘학급수’를 그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반응하였다. 그 다음 순으로는 전체 응답의 25.2%가 ‘원아수’를 적절한 기준일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반응 양상은 행정가와 교수 집단에서 뿐이고, 원장·교사 집단에서는 ‘학급수’와 ‘운영시간’ 양자에 동일한 반응을 보였다. 이로써 외부평가의 기간이나 기간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한 한 평가 대상이 되고 있는 유아교육·보육기관은 직접 대상이 되지 않는 다른 집단과 의견 차가 있음이 분명해진 셈이다. 외부평가기간 결정 기준에 대한 의견은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평가시기의 결정주체. 전체 응답자의 49.2%가 평가전담기관에서 외부평가의 시기를 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반응을 하였다(<표 3> 참조). 이러한 반응은 행정가(66.8%)와 교수(47.9%) 집단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외부평가 시기의 결정주체에 대한 반응 빈도는 집단 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평가주관기관이 될 행정부서(<표 1> 참조)가 외부평가의 시기를 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행정가들의 압도적인 반응은 집단의 이해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평가대상이 되는 기관의 원장·교사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 집에서 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반응이 가장 많은

<표 3> 외부평가에 대한 반응 빈도 및 집단간 차이 비교

						단위: 빈도(%)
	구분	원장·교사	행정가	교수	계	χ^2
평가기간	1일	96(34.9)	79(32.8)	54(37.8)	229(32.3)	17.16* (df=6)
	2일	71(25.8)	90(37.3)	71(36.6)	232(32.7)	
	3-4일	80(29.1)	64(26.6)	53(27.3)	197(27.7)	
	기타	28(10.2)	8(3.3)	16(8.2)	52(7.3)	
	계	275(100.0)	241(100.0)	194(99.9)	710(100.1)	
평가단구성*	지역교사대표	140(20.4)	101(15.7)	97(16.9)	338(17.8)	
	지역원장대표	121(17.7)	101(15.7)	81(14.1)	303(15.9)	
	지역학부모대표	103(15.0)	113(17.5)	94(16.4)	310(16.4)	
	관련분야전문가	188(27.4)	161(25.0)	179(31.3)	528(27.7)	
	행정담당자	121(17.7)	153(23.7)	115(20.1)	389(20.4)	
	기타	12(1.8)	16(2.4)	7(1.2)	35(1.8)	
계	685(100.0)	645(100.0)	573(100.0)	1,903(100.0)		
평가기간의결정기준	학급수에 따라	78(28.4)	91(37.8)	73(37.6)	242(34.1)	57.64** (df=8)
	원아수에 따라	47(17.1)	71(29.5)	61(31.4)	179(25.2)	
	운영시간에 따라	78(28.4)	44(18.3)	31(16.0)	153(21.5)	
	연령분포에 따라	52(18.9)	23(9.5)	16(8.2)	91(12.8)	
	기타	20(7.3)	12(5.0)	13(6.7)	45(6.3)	
계	275(100.1)	241(100.1)	194(99.9)	710(99.9)		
평가기간의결정주체	평가대상기관(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정한다)	164(59.6)	66(27.4)	87(44.8)	317(44.6)	22.44** (df=4)
	평가전담기관에서 정한다	95(34.5)	161(66.8)	93(47.9)	349(49.2)	
	기타	16(5.8)	14(5.8)	14(7.2)	44(6.2)	
	계	275(99.9)	241(100.0)	194(99.9)	710(100.0)	

*P<.01, **P<.001

*중복응답

59.6%로 나와 다른 두 집단과 대조적인 반응 양상을 보였다. 한가지 특이한 점은 평가인정제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교수의 경우, 평가전담기관(47.9%)과 평가대상기관(44.8%)에 대한 반응 빈도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3) 평가인정제의 도입시기

<표4>에 의하면 유아교육·보육 전문가들은 조속하게 평가인정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여

기고 있다. 응답자의 43.7%(1-2년 이내)와 43.4%(3-4년 이내), 즉 전체 응답자의 87.1%가 적어도 4년 이내에는 이 제도를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집단별 반응을 살펴보면, 원장·교사의 42.2%가 3-4년 이내에, 행정가의 48.5%가 1-2년 이내에, 교수의 50%가 3-4년 이내에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을 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세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4> 평가인정제의 도입시기에 대한 반응 빈도 및 집단간 차이 비교

단위: 빈도(%)

내용	구분	원장·교사	행정가	교수	계	χ^2
도 입 시 기	1-2년 이내	115(41.8)	117(48.5)	78(40.2)	310(43.7)	8.77 (df=6)
	3-4년 이내	116(42.2)	95(39.4)	97(50.0)	308(43.4)	
	5년 이후	30(10.9)	21(8.7)	13(6.7)	64(9.0)	
	기 타	14(5.1)	8(3.3)	6(3.1)	28(3.9)	
	계	275(100.0)	241(99.9)	194(100.0)	710(100.0)	

3. 평가인정 기준

1) 평가 영역별, 평가 하위영역별, 평가 항목별 중요도

<표 5>를 통해 평가 영역별 중요도에 대한 평균치를 살펴보면, ‘영양·건강·안전 관리’ 영역(4.33)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시설·설비’(4.28), ‘교육과정’(4.27), ‘운영관리체계’(4.09), ‘지원체계’(3.87) 순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원장·교사, 행정가, 교수의 세 집단 평가 영역별 평균을 비교했을 때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하위영역별 중요도를 비교해보면, 영양·건강·안전관리 영역의 ‘안전관리’(4.46) 하위영역의 점수가 가장 높고, 지원체계 영역의 ‘가족 서비스’(3.82) 하위영역의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표 5> 참조). 특히 ‘안전관리’ 하위영역에 대해서는 원장·교사(4.48), 행정가(4.46), 교수(4.42) 집단 모두 최고점수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근래에 자주 발생하고 있는 사고에 대한 사회 전반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평가 하위영역별 중요도에 대한 집단별 평균을 사후 비교했을 때, 총 16개 평가 하위영역중에서 시설·설비 평가 영역의 1개 하

위영역(‘건물의 위치 및 구조’), 교육과정 평가 영역의 2개 하위영역(‘교육내용’과 ‘교육방법’) 등 총 3개 평가 하위영역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6>에 제시된 45개 평가 항목별 중요도에 대한 평균치를 살펴보면, 유아교육·보육 전문가들은 ‘안전’(4.61)과 교육과정 영역의 ‘교사·유아 상호작용’(4.61) 항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가 하면 지원체계 영역의 가족서비스 ‘프로그램의 관리’(3.77), 실내의 ‘기타 시설’(3.78) 평가 항목 등은 중요도에 대한 평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최고, 최하 평균치에 대해 집단간 차이를 사후 비교했을 때에는 실내의 ‘기타 시설’에 대해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원장·교사 집단(3.85)과 교수 집단(3.84)이 행정가 집단(3.67)보다 ‘양호실’, ‘학부모 이용시설’, 자료실과 관련된 실내의 ‘기타 시설’에 보다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나아가서 집단별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평가 항목을 살펴보면, 원장·교사는 ‘교사·유아 상호작용’(4.66)을, 행정가는 ‘안전’(4.67)을, 교수는 ‘급식시설 및 설비’(4.60)를 가장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평가영역 및 하위 영역별 중요도에 대한 평균 및 집단간 차이 비교

영역	하위영역	원장·교사	행정가	교수	전체	F	scheffé
시설·설비	건물의 위치 및 구조	4.39	4.29	4.27	4.32	4.347*	a*c
	실내시설	4.23	4.15	4.23	4.20	3.046	
	실외시설	4.26	4.29	4.36	4.28	2.728	
	기타시설 및 설비	4.34	4.30	4.34	4.33	4.280	
	계	4.31	4.25	4.30	4.28	1.345	
교육과정	교육계획	4.27	4.25	4.33	4.28	1.791	a,c*b
	교육내용	4.33	4.20	4.33	4.28	4.373*	a*b
	교육방법	4.44	4.29	4.39	4.37	5.899*	
	교육과정 평가	4.15	4.16	4.17	4.16	.104	
	계	4.29	4.25	4.31	4.27	2.059	
영양·건강·안전관리	영양관리	4.38	4.44	4.37	4.40	1.103	
	건강관리	4.11	4.18	4.11	4.13	1.214	
	안전관리	4.48	4.46	4.42	4.46	.782	
	계	4.32	4.36	4.30	4.33	.953	
	운영관리체계	운영위원회	3.85	3.89	3.99	3.90	2.769
재정·사무·교직원 관리		4.14	4.24	4.14	4.19	1.942	
운영계획 및 평가		4.19	4.16	4.20	4.18	.215	
계		4.06	4.10	4.13	4.09	.777	
지원체계		가족서비스	3.77	3.83	3.87	3.82	1.224
	사회적 자원	3.89	3.89	4.01	3.93	2.451	
	계	3.83	3.86	3.94	3.87	1.873	
	전체	4.16	4.16	4.19	4.17	.421	

* p<.05

a: 원장·교사, b: 행정가, c: 교수

평가 항목에 대한 집단별 평균을 분석했을 때 (<표 6> 참조)에는 45개 중에서 시설·설비 영역의 5개(‘건물의 위치’, ‘교실’, ‘교직원 시설’, ‘기타 시설’, ‘놀이터’), 교육과정 영역의 4개(‘표현생활’, ‘언어생활’, ‘일과’, ‘자유놀이’), 영양·건강·안전관리 영역의 1개(‘건강’), 운영관리체계 영역의 1개(‘재정’), 그리고 지원체계 영역의 1개(‘지역사회의 자원 활용 및 봉사’) 등 총 12개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집단간에 가장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평가 항목은 ‘건물의 위치’, ‘일과’, ‘자유놀이’, ‘건강’에 대한 것(p<.001)으로, 건물의

위치에 대해서는 원장·교사 집단이 교수 집단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는가 하면, 일과와 자유놀이에 대해서는 원장·교사 집단이 교수 집단과 함께 행정가 집단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다.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는 행정가 집단이 원장·교사나 교수 집단보다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2) 평가인정 기준별 중요도

<표 7>을 통해 평가인정 기준 133개의 중요도에 대한 평균치를 분석해보면, 전체 평균은 4.21이고, 최고치는 4.71(교육과정 영역의 ‘교사

<표 6> 평가 항목별 중요도에 대한 평균 및 집단간 차이 비교

영역	하위영역	항 목	원장·교사	행정가	교수	전체	F	Scheffé
시설·설비	건물의 위치 및 구조	건물의 위치	4.49	4.32	4.27	4.37	5.902***	a*c
		건물의 구조	4.30	4.27	4.26	4.28	.514	
	실내 시설	현관	3.96	3.83	3.91	3.90	2.505	
		교실	4.46	4.34	4.44	4.42	4.026*	a*b
		급식시설및 설비	4.59	4.58	4.60	4.59	.082	
		화장실	4.40	4.32	4.39	4.37	1.742	
		교직원 시설	4.15	3.98	4.09	4.08	5.381**	a*b
		기타시설	3.85	3.67	3.84	3.78	6.891**	a,c*b
	실외시설	시설 및 자료 관리	4.23	4.31	4.31	4.28	1.689	
		놀이터	4.28	4.21	4.40	4.29	6.202**	c*b
	기타시설 및 설비	시설 및 자료관리	4.18	4.09	4.11	4.13	1.494	
		냉·난방 시설	4.30	4.22	4.19	4.24	2.480	
		안전시설	4.50	4.56	4.58	4.54	1.303	
		채광 및 조명시설	4.39	4.33	4.38	4.36	.611	
		환기 및 공기 정화시설	4.35	4.27	4.34	4.32	1.144	
	위생시설 및 설비	4.15	4.15	4.23	4.17	1.189		
교육과정	교육과정 계획	교육 목적	4.39	4.38	4.42	4.39	.226	
		유아의 이해	4.15	4.12	4.23	4.16	1.925	
		교육계획	4.27	4.24	4.36	4.28	2.819	
	교육 내용	건강생활	4.38	4.27	4.38	4.34	2.916	
		사회생활	4.52	4.45	4.55	4.50	2.174	
		표현생활	4.26	4.10	4.22	4.19	4.135*	a*b
		언어생활	4.20	4.06	4.21	4.15	4.551*	c,a*b
	교육 방법	탐구생활	4.28	4.14	4.27	4.23	3.534	
		일과	4.41	4.19	4.35	4.32	7.960***	a,c*b
		교사·유아 상호작용	4.66	4.58	4.58	4.61	2.076	
교육과정평가	자유놀이	4.44	4.23	4.43	4.37	9.447***	a,c*b	
	집단활동	4.23	4.14	4.20	4.19	1.431		
교육과정평가	교육과정평가	4.15	4.16	4.17	4.16	.104		
영양·건강·안전관리	영양관리	영양	4.26	4.35	4.31	4.30	1.627	
		급식관리	4.50	4.43	4.52	4.49	1.515	
	건강관리	건강	3.96	4.15	3.96	4.02	7.736***	b*a,c
		위생	4.28	4.28	4.22	4.26	.820	
	안전관리	정신건강	4.10	4.11	4.15	4.12	.436	
		안전	4.59	4.67	4.58	4.61	2.426	
응급처치	4.36	4.26	4.26	4.30	2.457			
운영관리체계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3.85	3.89	3.99	3.90	2.769	
	재정·사무·교직원관리	재정	3.91	4.19	4.04	4.04	4.920*	b*a
		사무관리	4.13	4.16	4.08	4.13	1.095	
		교직원관리	4.39	4.36	4.44	4.39	.916	
운영계획 및 평가	운영계획 및 평가	4.19	4.16	4.20	4.18	.215		
지원체계	가족 서비스	프로그램의 계획	3.81	3.85	3.95	3.86	2.593	
		프로그램의 관리	3.73	3.80	3.79	3.77	.574	
	사회적 자원	지역사회의 자원활용 및 봉사	3.83	3.83	4.00	3.88	4.093*	c*b,a
		정보체계의 구축	3.95	3.95	4.02	3.97	.758	

* p<.05, ** p<.01, ***p<.001

a: 원장·교사, b: 행정가, c: 교수

의 기본자세), 최저치는 3.50(시설·설비 영역의 ‘학부모 이용시설의 유무’)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자가 제시한 평가인정 기준들을 유아교육·보육 전문가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133개 평가인정 기준 중에서 4.5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것은 총 20개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설·설비 영역의 10개, 교육과정 영역의 6개, 영양·건강·안전관리 영역의 4개를 차지하고 있다. 즉 시설·설비 영역에서는 ‘공간의 적절성’(4.51), ‘공간구성의 적합성’(4.50), ‘교재·교구의 구비정도’(4.57), ‘조리실의 유무’(4.57), ‘급식공간의 유무’(4.56), ‘급식기구의 구비정도’(4.63), ‘교사용 자료의 구비정도’(4.51), ‘비상구의 유무’(4.50), ‘계단 및 난간의 안전도’(4.54), ‘가스 및 전기시설의 관리상태’(4.59), 교육과정 영역에서는 ‘교육과정의 통합성’(4.53), ‘기본생활습관지도’(4.54), ‘협동적 문제해결지도’(4.59), ‘교사의 기본자세’(4.71), ‘교사 언어의 적절성’(4.60), ‘교사의 상호작용 방법의 적절성’(4.53), 그리고 영양·건강·안전관리 영역에서는 ‘조리 및 배식 관리’(4.51), ‘사고 예방과 긴급 사태 대비’(4.54), ‘차량 안전운행’(4.70), ‘보험가입 여부’(4.60) 등이 4.5점 이상의 점수를 보이고 있다.

20개의 높은 평정 점수를 얻은 평가인정 기준들을 집단별로 비교해보면, 4개만이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테면, ‘공간 구성의 적합성’은 $p < .05$ 수준에서 교수 집단(4.57)과 행정가 집단(4.42)간에, ‘교사용 자료의 구비 정도’는 $p < .01$ 수준에서 원장·교사 집단(4.51)과 행정가 집단(4.31)간에, ‘교육과정의 통합성’은 $p < .01$ 수준에서 교수 집단(4.61)과 행정가 집단(4.43)간에, 그리고

‘보험 가입의 여부’는 $p < .001$ 수준에서 원장·교사 집단(4.63), 행정가 집단(4.68)과 교수 집단(4.45)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한가지 놀라운 사실은 ‘학부모 이용시설의 유무’(3.50), 현관의 ‘공간배치’(3.66)나 ‘가족지원 프로그램의 유무’(3.72),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활용’(3.75), 가족서비스 ‘프로그램의 만족도’(3.77)의 평가인정 기준에 대해서는 유아교육·보육 전문가들이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교육·보육 프로그램에서 기관운영에 대한 학부모 참여나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유아교육·보육 전문가들이 그리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그러나 비중을 낮게 두면서도 ‘학부모 이용시설의 유무’와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활용’ 평가인정 기준들에 대해서는 세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두 평가인정 기준에 대해 집단별 평균 사후 검증을 했을 때, ‘학부모 이용 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장·교사 집단(3.53)과 교수 집단(3.61)이 행정가 집단(3.38)보다 강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활용에 대해서는 교수 집단(3.92)이 원장·교사(3.64)나 행정가(3.74) 집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표 7>을 통해 평가인정 기준별로 집단 평균을 비교해 보면, 총 133개 평가인정 기준 중에서 ‘출입구의 위치’, ‘유아용 사물함의 구비정도’, 실내의 ‘자료실의 유무’, 실외 ‘공간구성의 적합성’, ‘장·단기 교육계획의 유무’, 교육계획에서의 ‘특수아의 요구 반영도’, 건강 생활 교육과정에서의 ‘감각 기관 및 대소근육 운동경험 제공’, 자유놀이시 ‘유아의 개별적 요구 반영도’, ‘자유놀이의 적합성’, ‘유아의 건강검진’, 안전의 ‘보험 가입여부’, ‘예산 집행의 공정성’, ‘예산 집행

<표 7> 평가인정 기준별 중요도에 대한 평균 및 집단간 차이 비교

영역	하위영역	항 목	평가인정 기준	원장·교사	행정가	교수	전체	F	Scheffé
시설·설비	건 물의 위치 및 구조	건물의 위치	주변 환경의 적절성	4.49	4.32	4.27	4.37	5.902**	a*c
			건물의 법정기준	4.21	4.31	4.33	4.28	2.362	
		건물의 구조	건물의 심미성	4.20	4.13	4.02	4.13	3.537*	a*c
			출입구 위치	4.52	4.30	4.32	4.39	8.188***	a*c,b
			실내의 구조	4.52	4.43	4.47	4.48	1.395	
		장애이를 위한 배려	4.07	4.20	4.15	4.13	2.098		
	실 내 시설	현관	현관의 구조	4.27	4.15	4.18	4.20	2.575	
			공간배치	3.64	3.52	3.86	3.66	2.137	
		교 실	크기의 적절성	4.54	4.46	4.56	4.51	1.687	
			공간구성의 적합성	4.52	4.42	4.57	4.50	3.046*	c*b
			교재·교구의 구비정도	4.58	4.51	4.61	4.57	1.607	
			유아용 사물함의 구비정도	4.20	3.97	4.01	4.07	7.944***	a*c,b
		급식시설 및 설비	조리실의 유무	4.56	4.56	4.58	4.57	.143	
			급식공간의 유무	4.56	4.55	4.58	4.56	.139	
			급식기구의 구비정도	4.64	4.61	4.64	4.63	.178	
		화 장 실	세면시설의 적절성	4.31	4.21	4.30	4.27	1.931	
			변기시설의 적절성	4.35	4.40	4.31	4.29	3.090*	
			바닥의 안정성	4.46	4.40	4.50	4.46	1.445	
			위생상태	4.47	4.46	4.46	4.46	.056	
		교직원 시설	업무공간확보	4.11	3.93	4.08	4.11	4.448*	a*b
휴식공간배치			3.84	3.71	3.80	3.84	1.870		
교사용 자료의 구비정도	4.51		4.31	4.40	4.51	5.413**	a*b		
기타시설	양호실의 유무	3.79	3.75	3.85	3.80	.896			
	화부모 이용시설의 유무	3.53	3.38	3.61	3.50	5.189**	a*b		
	자료실의 유무	4.23	3.85	4.05	4.05	14.832***	a*c,b		
시설 및 자료관리	내구성 및 내화성	4.24	4.34	4.39	4.32	2.683			
	보수 및 관리상태	4.29	4.19	4.18	4.23	2.027			
	안전과 위생상태	4.34	4.41	4.42	4.39	1.130			
	특수이를 위한 배려	4.05	4.29	4.26	4.19	6.946**	c,b*a		
실 외 시설	놀 이 터	크기의 적절성	4.38	4.20	4.42	4.33	6.671**	a,c*b	
		공간구성의 적합성	4.49	4.35	4.60	4.48	8.280***	c*b	
		놀이시설의 구비정도	4.28	4.18	4.39	4.28	5.388**	c*b	
		특수이를 위한 배려	3.97	4.08	4.17	4.06	4.169*	c*a	
	시설 및 자료관리	보수 및 관리상태	4.24	4.16	4.18	4.20	1.021		
		안전과 위생상태	4.33	4.37	4.39	4.36	.503		
		창고의 유무	3.96	3.74	3.77	3.83	5.793**	a*b	
기 타 시설 및 설비	냉·난방 시설	시설의 유무	4.49	4.37	4.30	4.40	5.369**	a*c	
		시설의 관리상태	4.12	4.07	4.07	4.09	.407		
	안전 시설	비상구의 유무	4.42	4.55	4.54	4.50	3.121*		
		계단 및 난간의 안전도	4.50	4.53	4.62	4.54	2.490		
		가스 및 전기시설의 관리상태	4.59	4.59	4.58	4.59	.042		
	채광 및 조명시설	채광상태	4.42	4.35	4.41	4.40	.889		
		조명상태	4.35	4.30	4.34	4.33	.291		
	환기 및 공기정화 시설	교실의 환기상태	4.39	4.43	4.36	4.39	.759		
		기타 공간의 환기상태	4.31	4.19	4.24	4.25	2.094		

* p<.05, ** p<.01, ***p<.001

a: 원장·교사, b: 행정가, c: 교수

요목	하위영역	항목	평가인정 기준	원장·교사	행정가	교수	전체	F	Scheffé		
교육과정	위생시설 및 설비	낮잠시설의 관리		4.23	4.19	4.31	4.24	1.618			
		개인용 침구의 구비정도		3.78	3.80	3.97	3.84	3.106*			
		급수시설의 관리		4.33	4.40	4.38	4.37	.701			
		오물관리		4.28	4.20	4.26	4.25	1.076			
	교육목적	교육목적의 적절성		4.43	4.44	4.48	4.45	.405			
		교육목적의 인지도		4.34	4.33	4.36	4.34	.070			
	유아의 이해	개인유아에 대한 정보 수집과 활용		4.31	4.20	4.44	4.31	7.063**	c*b		
		유아평가의 적절성 및 충실도		4.19	4.19	4.28	4.21	.999			
		전문기관과의 협력		3.96	3.97	3.97	3.96	.032			
	교육계획	장·단기 교육계획의 유무		4.56	4.32	4.46	4.45	8.286***	a*b		
		교육과정의 통합성		4.55	4.43	4.61	4.53	5.406**	c*b		
		가족 및 지역사회의 관심 및 요구 반영도		4.16	4.15	4.26	4.19	1.615			
			특수아의 요구 반영도		3.81	4.05	4.09	3.97	9.522***	c*a	
	건강생활	건강생활	감각기관 및 대소근육 운동 경험 제공		4.37	4.10	4.36	4.27	12.183***	a*b	
			신체 및 환경의 청결지도		4.37	4.31	4.39	4.35	1.024		
			건강교육		4.31	4.20	4.28	4.26	1.780		
				안전교육		4.46	4.48	4.50	4.48	.253	
		사회생활	자기조절지도		4.47	4.43	4.60	4.49	4.509*	c*b	
			기본생활습관지도		4.57	4.48	4.54	4.54	1.708		
			협동적 문제해결지도		4.62	4.52	4.62	4.59	2.257		
				가족 및 사회와의 관계지도		4.39	4.37	4.44	4.40	.668	
		표현생활	미술활동지도		4.37	4.11	4.24	4.25	2.356		
	음악활동지도			4.25	4.12	4.22	4.20	2.535			
	동작활동지도			4.29	4.10	4.21	4.20	4.835**	a*b		
	극화활동지도			4.23	4.05	4.22	4.17	4.365*	a,c*b		
	언어생활	의사소통능력지도		4.34	4.29	4.48	4.36	4.736**	c*b		
		문학활동지도		4.12	3.99	4.18	4.09	3.764*	c*b		
		글자에 대한 관심		4.14	3.89	3.97	4.01	7.459**	a*b		
탐구생활	탐구능력지도		4.33	4.26	4.44	4.34	3.701*	c*b			
	수학적 문제해결지도		4.19	4.07	4.18	4.15	2.085				
	과학적 문제해결지도		4.25	4.11	4.23	4.24	2.738				
		다양한 정보활용 기회 제공		4.33	4.12	4.24	4.24	4.922**	a*b		
교육방법	일과	일과배치의 적절성		4.40	4.18	4.58	4.38	2.089			
		일과운영의 적절성		4.42	4.20	4.37	4.33	7.552**	a*b		
	교사·유아 상호작용	교사의 기본자세		4.75	4.69	4.69	4.71	.913			
		교사 언어의 적절성		4.64	4.59	4.54	4.60	1.791			
		교사의 상호작용 방법의 적절성		4.60	4.46	4.51	4.53	3.213*			
	자유놀이	유아의 개별적 요구 반영도		4.42	4.17	4.36	4.32	9.164***	a*b		
		자유놀이의 적합성		4.44	4.19	4.47	4.36	12.203***	a,c*b		
		자유놀이지도의 적극성		4.56	4.32	4.46	4.41	3.453*			
	집단활동	집단활동의 다양화		4.28	4.17	4.23	4.23	1.721			
		집단활동의 적합성		4.17	4.13	4.13	4.15	.330			
유아의 개인차 반영도			4.25	4.13	4.24	4.20	2.293				

* p<.05, ** p<.01, ***p<.001

a: 원장·교사, b: 행정가, c: 교수

영역	하위영역	항목	평가인정 기준	원장·교사	행정가	교수	전체	F	Sceffé	
영양·건강·안전관리	교육과정평가	교육과정평가	교육계획과 실천의 일치도	4.00	4.05	4.06	4.03	.496		
			평가방법의 적절성	4.16	4.20	4.19	4.18	.104		
			평가결과의 활용도	4.23	4.25	4.30	4.16	.528		
			교육과정의 만족도	4.20	4.15	4.15	4.17	.366		
	영양관리	영양	영양요구 반영도	4.15	4.29	4.23	4.22	2.800		
			식단의 충실도	4.37	4.41	4.39	.439	.368		
			식품저장의 관리	4.49	4.50	4.37	4.46	2.972		
		급식관리	조리 및 배식관리	4.50	4.54	4.49	4.51	.539		
			건강관리	유아의 건강검진	3.92	4.24	3.97	4.04	13.108***	b*a,c
				교직원의 건강검진	4.06	4.26	4.05	4.11	6.696**	b*a,c
	의료기관과 협력	3.88		3.97	3.84	3.90	1.653			
	위생	교직원의 위생 관념과 태도	4.39	4.36	4.32	4.36	.495			
		구강위생지도	4.27	4.27	4.15	4.24	2.249			
		질병예방	4.19	4.19	4.18	4.19	.054			
	정신건강	유아의 적응지도	4.30	4.16	4.28	4.25	3.058*			
		아동학대 예방교육	4.05	4.10	4.12	4.09	.612			
아동학대 대처		3.95	4.05	4.07	4.02	1.622				
안전관리	안전	사고예방과 긴급사태대비	4.45	4.59	4.59	4.54	4.138*			
		차량안전운행	4.68	4.73	4.70	4.70	.669			
		보험가입 여부	4.63	4.68	4.45	4.60	9.098***	a,b*c		
	응급처치	보호자 사전동의의 제도화	4.32	4.24	4.25	4.27	.918			
		의약품 관리 및 보관 상태	4.34	4.28	4.27	4.30	.743			
		비상연락체계 확립	4.43	4.25	4.25	4.32	5.261**	a,b*c		
운영관리체계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활용	3.64	3.74	3.92	3.75	6.988**	c*a,b	
			운영관리지침의 보유 여부	4.01	3.95	4.05	4.00	1.118		
			전산망의 활용도	3.91	3.98	4.00	4.00	1.060		
	재정·사무·교직원관리	재정	예산편성 과정의 합리성	4.02	4.03	4.00	4.02	.499		
			예산집행의 공정성	4.03	4.32	4.15	4.16	12.754***	b*a,c	
			예산집행 결과의 공개	3.87	4.21	3.98	4.02	12.215***	b*a,c	
		사무관리	문서의 유지·보존도	4.06	4.08	3.97	4.05	1.565		
			사무처리의 효율성	4.05	4.03	3.92	4.28	1.946		
			인사의 공정성	4.29	4.38	4.34	4.33	1.021		
	교직원관리	근무여건의 충실도	4.27	4.30	4.27	4.28	.123			
		전문성 개발 지원상태	4.40	4.37	4.51	4.42	2.318			
		원장의 전문성	4.48	4.42	4.54	4.48	1.755			
운영계획및평가	운영계획 및 평가	장·단기 발전 계획의 유무	4.20	4.16	4.18	4.18	.150			
		운영실태 평가의 충실도	4.19	4.18	4.23	4.19	.491			
지원체계	가족서비스	프로그램의 계획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유무	4.02	3.98	4.17	4.04	2.683		
			부모참여 프로그램의 유무	3.74	3.83	3.96	3.83	4.279*	c*a	
			가족지원 프로그램의 유무	3.67	3.74	3.76	3.72	.115		
	사회적자원	프로그램의 관리	프로그램의 만족도	3.73	3.81	3.79	3.77	.597		
			지역사회자원 활용및 봉사	지역사회자원의 활용도	3.90	4.11	3.88	3.95	5.979**	
				사회봉사	3.77	3.78	3.89	3.81	2.916	
정보체계의 구축	정보체계의 구축	타유아교육·보육기관과의 협력	3.93	4.00	3.92	3.95	.678			
		전산망 구축 및 활용도	3.96	4.04	3.99	3.99	.708			

* p<.05, ** p<.01, ***p<.001

a: 원장·교사, b: 행정가, c: 교수

결과의 공개' 등 총 13개 평가인정 기준만이 $p < .001$ 수준에서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간 평균 차이에 대한 사후 비교를 했을 때 (<표 7> 참조), 원장 · 교사 집단은 직접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는 교육자의 입장을 반영하여 '출입구의 위치', '유아용 사물함의 구비정도', '자료실의 유무', '장 · 단기 교육계획의 유무', '감각 기관 및 대소근육 운동 경험 제공', '유아의 개별적 요구', '보험가입 여부' 등 유아용 시설 · 설비나 교육과정의 7개 평가인정 기준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해 교수나 행정가 집단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에 비해 행정가 집단은 '유아의 건강검진', '보험가입 여부', '예산집행의 공정성', '예산집행 결과의 공개' 등의 4개 평가인정 기준, 즉 건강 관리나 재정 관리에 다른 두 집단보다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면서도 교육과정과 관련된 평가인정 기준('공간구성의 적합성', '장 · 단기 교육계획의 유무', '감각 기관 및 대소근육 운동 경험 제공', '유아의 개별적 요구', '자유놀이의 적합성')에는 관심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행정부처에 소속되어 있다는 그 특유의 입장을 나타냈다. 교수 집단의 경우에는 '공간구성의 적합성'과 '특수아의 요구 반영' 평가인정 기준만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교수 집단은 시설 · 설비 관련 평가인정 기준('출입구의 위치', '유아용 사물함의 구비정도', '자료실의 유무')이나 영양 · 건강 · 안전관리 관련 평가인정 기준('유아의 건강검진', '안전 보험가입 여부')에 대해서는 행정가 집단과 함께, 그리고 운영관리체계 관련 평가인정 기준('예산집행의 공정성', '예산집행 결과의 공개')에 대해서는 원장 · 교사 집단과 함께 그 의의를 적게 두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현재 유아교육 · 보육 종사자와 행정가 뿐 아니라 유아교사를 양성하고 있는 대학 교수들조차도 종합적인 유아교육 · 보육 서비스 실천에 별다른 의의를 두고 있지 않다는 시사를 준다.

IV. 논의 및 결론

유아교육 · 보육 전문가들은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정부의 주관 하에 3-6개월의 자체평가와 1-2일의 외부평가(실사)의 절차를 거치는 평가인정제를 3년에 한번씩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 도입시기는 3-4년 이내로 빠를수록 좋다는 반응이다. 이러한 의견은 확산되고 있는 각급 학교평가와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논의 등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평가인정제는 설립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유아교육 · 보육기관에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견해 또한 본 연구자가 제안한 교육 · 복지형 종합평가제의 기본 가정과 일치한다.

평가인정제 시행에 있어서 평가주관 행정부처가 교육부나 보건복지부와 같은 중앙부처이어야 하는지, 지방행정부처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비율이 높지만 행정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를 내세우는 주장도 적지 않아 향후 평가인정제가 교육자치나 지방자치와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한국의 유아교육 · 보육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제도 도입이나 정책 추진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그 빈도는 적다할지라도 우리 나라 대학평가제나 호주의 학교평가에서처럼 국가가 인정하는 민간단체가 국가 수준에서 평가하는 경우나 미국의 NAEYC와 같이 민간의 전문 유아교육 · 보육기구가 전

국 규모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프로그램의 질 제고나 사회적 책무성 이외에 평가인정제에서 본래 추구하고 있는 자율성, 전문성, 신뢰성 제고 등이 함께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평가단을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자체 평가단에는 해당기관의 교사와 학부모가, 그리고 외부 평가단(실사단)에는 관련분야 전문가, 행정 담당자, 지역교사 대표가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자체 평가단 구성에 대한 유아교육·보육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외부 평가단에 관련분야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미국의 Head Start나 영국의 학교평가제, 그리고 본 연구자가 선행 연구(양옥승, 1999; Yang, 2000)에서 제안한 기본 입장과 같다. 외부 평가단(실사단)에 관련분야 전문가를 참여시킬 때에는 일반적으로 자원봉사의 차원에서 일정 기간 동안 소정의 교육을 받게 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Head Start에서는 외부 평가단에 수요자인 학부모를 적극 참여시킴으로써 교육자치와 교육·복지형종합평가체계로서 그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러한 접근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크다. 더욱이 교육자치나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며 수요자 중심의 교육·보육을 실현시키는 것이 21세기의 다원화 사회에 요청되는 정책 방향이라면 원장과 교사 뿐 아니라 학부모의 참여를 강조하는 교육·복지형 종합평가제를 정착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외부평가 기간을 결정하는 기준이나 평가시기 결정 주체를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집단별로 의견이 분분하다. 행정가와 교수 집단은 학급수를 기준으로 하자는 데 비해, 현장교사와 원장 집단은 학급수와 운영시간 양자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평가시기를 정할

때에도 행정가나 교수와는 달리 원장과 교사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평가인정제 시행에 앞서 유아교육·보육 관련 집단간의 의견 조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는 것도 필요하다. 어떤 경우는 평가 주관기관과 대상기관이 일정기간(예: 1-2일) 협의를 거쳐 결정하는데 비해(예: 미국의 Head Start, 영국의 OFSTED 평가), 어떤 경우는 자체평가 이후 신청한 기관에 한해 취원 원아수의 출석률을 기준으로 기간을 결정(예: 미국의 NAEYC나 호주의 NCAC의 평가)한다.

평가인정 결과에 대해 우리나라 유아교육·보육 전문가들은 5등급으로 구분하여 보고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는 미국 NAEYC의 '인정', '인정지연', '불인정', 영국의 '우수', '만족', '불만족' 등의 3등급제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평가 결과에 대한 공개여부는 이 연구의 결과(인정 이상 3등급 선별 공개)와는 관계없이 평가인정제 시행에 앞서 보다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평가 결과의 활용방법에 대한 의견은 앞으로 평가인정제가 어떤 의도로 발전, 추진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이 연구에서 유아교육·보육 전문가들은 자율장학의 기준, 재정지원 기준, 수요자의 기관 선택 기준 등 3가지 요소를 모두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평가인정제가 재정 기준과 인정 기준의 의미를 모두 함축하는 '종합평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본 연구자의 선행연구(양옥승, 1998, 1999; Yang, 2000)와 그 방향이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5개 영역으로 분류된 133개 평가인정 기준에 대해서도 유아교육·보육

전문가들은 대체로 의의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평가인정 기준을 하위 영역별, 항목별로 분석했을 때, ‘안전’과 ‘교사·유아 상호작용’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육과 보호를 통합한 평가 항목의 필요성을 시사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집단별 점수를 비교했을 때에는 각 집단의 이해나 특성을 드러내는 등 또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단적인 예로, 원장과 교사들은 ‘교사·유아 상호작용’ 평가 항목에, 행정가는 ‘안전’ 평가 항목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나아가서 133개 평가인정 기준의 중요도 지수를 살펴보면, 5개 영역 중에서 ‘영양·건강·안전 관리’, ‘시설·설비’, ‘교육과정’ 등의 3개 영역에 속하는 20개의 기준들에 대해서는 집단별로 큰 차이 없이 4.5점 이상의 높은 평정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교육·보육에 대한 유아교육·보육 전문가들의 높은 의식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세부적인 평가인정 기준에 대한 유아교육·보육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면, ‘운영관리체계’나 ‘지원체계’에 대해서는 비교적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은 교사의 기본자세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학부모의 참여나 가족지원 서비스에 대한 의의를 적게 두고 있었다. 특히 중요도의 하위 지점에 기관 운영에의 부모 참여나 가족지원 관련 평가인정 기준들이 다수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생태학적으로 가족 발달을 지지할 수 있는 가족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 밖에도 이 연구에서는 유아교육·보육 전문가들은 운영관리의 투명성과 교원의 복지가 동시에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에 큰 기대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은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체계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 부재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상의 사실에 비추어볼 때, 유아교육·보육 서비스는 가족이나 교원의 발달과 복지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서비스로 나아가야 한다는 OMEP(1999)의 지적을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또한 유아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제고와 동시에 사회적 책무성을 강조하는 유아교육·복지형 종합평가 인정제를 적극 도입하고 활성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준다.

참고문헌

- 교육부(2000). 유치원 총괄현황. 기간행 자료.
 보건복지부(2000). 보육통계. 중앙보육정보센터.
<http://www.educare.or.kr>.
 양옥승(1998). 미국의 유아교육기관 평가제 연구. 교육과정평가연구, 1 (1). 193-204.
 양옥승(1999).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종합평가제 개발: 기초연구. 청삼아동문제연구소.
 양옥승(1991)편. 탁아연구. 서울: 양서원
 이은화, 양옥승(1988). 유아교육론. 서울: 교문사.
 이인효 외(1998). 국가수준의 초·중등학교 평가제도 도입 및 평가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임연기, 신상명(1998). 학교평가 국제 비교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장명림 외(1999).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촉진을 위한 유치원 평가체계 구축. 한국교육개발원.
 통계청 사회통계국(2000). 인구동태통계연보.

- Bryce. Q. (1995). 호주의 보육시설 인준체제의 적용에 있어서 전국 보육시설 인준심의위원회와 그 역할. 한국과 호주의 보육정책 비교. 삼성복지재단 한·호 심포지엄자료.
- Cochrane(2000). 뉴질랜드의 사례: 학교평가와 교육의 질. 학교평가 효과성에 관한 한국교육개발원 국제 세미나 자료.
- Esping-Andersen, G. (1990). *The three world of welfare capitalism*. Cambridge: Policy Press.
- Harper. S. (1995). 빅토리아주의 보육시설 인준체제 적용의 영향. 한국과 호주의 보육정책 비교. 삼성복지재단 한·호 심포지엄 자료.
- Jackson, E. L.(1996). Work conditions in long day care in the era of accreditation. *Australi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21(2), 17-20.
- Krappmann, L. (2000). 독일 킨더가르텐의 새로운 과제. 한국보육교사회 독일 교수 초청 특별 강연회 자료.
- Murray, S.(1996). Evaluating the evaluation of child care accreditation. *Australi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21(2), 12-16.
- OMEF(1999). International symposium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for 21th century: Global guidelines from an international symposium.
- Page - Jones, R. (2000). 영국의 사례: 학교개선과 학교평가. 학교평가 효과성에 관한 한국교육개발원 국제 세미나 자료.
- Sibley, A. (1996). *Quality initiative year one report: Georgia Head Start*.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s NO. ED 394 730)
- Yang, O. S. (2000, November). Role of accreditation standards for the quality control of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Paper presented at the NAEYC annual conference, Atlanta, GA.